

‘신차급 업그레이드’...기아 최초 전기차 아성 잇는다

‘더뉴 EV6’ 시승기

외·내부 미래지향적 디자인 눈길
4세대 배터리...1회 충전 494km
튜닝·소음제어로 안정적 승차감



기아는 10일 오전 광주 서구~화순 도곡면 왕복 약 46km 구간에서 ‘THE NEW EV6(더뉴EV6)’의 시승 행사를 가졌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기아의 첫 순수 전기자동차인 EV6가 디자인, 전비, 사용감 등 신차 수준으로 개선한 새 모델로 출시됐다. EV6는 지난 2021년 출시 후 3년간 21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는 등 인기 차량으로 자리를 공고히 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THE NEW EV6(더뉴EV6)’은 기존 차량의 장점을 기반으로 상품성을 대폭 강화, 전 트림의 가격을 동결해 뛰어난 경쟁력도 확보했다.

10일 오전 11시 광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화순 도곡면까지 왕복 약 46km 거리를 롱레인지 어스 2WD 기본형으로 운행해 왔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우중충한 날씨였지만 소위 말하는 ‘운전할 맛 나는 전기차’를 경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외·내부 모두 기존 EV6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강조해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전면부는 그간 기아 신차들의 패밀리 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리아팅’을 적용해 차량 개성이 뚜렷해졌다. 자동차의

눈썹이라고 불리며 인상을 결정하는 주간 주행등(DRL)의 형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기존 절취선처럼 끊겨있던 DRL이 매끄럽게 이어졌으며 아래로 꺾어지는 헤드라이트와 동시에 점등했을 때 매력적인 눈매를 뽐냈다.

또 후드의 캐릭터 라인을 차량 하단까지 연결하고 날개 형상의 범퍼 디자인을 적용해 한층 역동적인 인상을 구현했다.

측면부의 경우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기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현대적 대비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 견고한 느낌을 주는 신규 디자인이 적용된 휠로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후면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후미등, 정지등, 방향 전환등)는 DRL과 같이 스타맵 라이팅이 적용돼 통일감은 물론 스포티함까지 고루 갖췄다. 후면 범퍼 하단

부도 전면부 범퍼처럼 날개 형상의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구현해 냈다.

실내 디자인 또한 고급형 전기차에 걸맞게 개선됐다.

더욱 세련된 디자인을 위해 계기판에서부터 내비게이션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핸들도 달라졌는데, 스티어링 휠은 상·하단부가 평평한 더블 D컷 스타일로 변경돼 그립감과 스포티함을 모두 챙겼다. 센터 콘솔의 전원버튼 옆에는 새로운 지문인식 모듈이 추가돼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GT 라인의 경우 스웨이드 재질 내장재로 고급스러움이 한층 강조됐다.

이번 신차급 부분변경으로 외·내부뿐만 아니라 주행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더뉴EV6에는 84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크게 늘었



더뉴EV6는 기존 수평적인 조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럽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아 제공

다. 기존 롱레인지 2WD 모델 기준 475km에서 494km로 늘어 장거리 주행 시 부담이 적어졌다.

그동안 전기차가 정속함이 강조되면서 주행 시 심심하다거나 재미없다는 평이 뒤따랐지만 스포츠 모드를 설정하지 않아도 강력한 가속 능력을 보였다. 또 전기차답게 정차 후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굵은 느낌이 없었다. 승차감 또한 향상됐는데 기존에 적용됐던 ‘주파수 감응형 속업소버’를 튜닝해 포트홀이나 젓은 도로 등 거친 노면에서도 안정적이었다. 모터 소음 제어도 최적화하고 후륜 모터의 흡차음 면적을 넓혀 정속성도 강화했다.

더뉴EV6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차량과 사용자 간 연결성을 높이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탑재됐다. 무선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OTA)의 범위를 제어기까지 확대해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도 대거 탑재됐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HoD) 기본 적용 △무선 연결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e하이패스 등이 다.

이번 더뉴EV6는 상품성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가격은 동결해 부분 개선 모델의 정수라고 칭해지고 있다. 기존 EV6 차주들의 불편사항만을 적극 개선해 상품성, 디자인, 가격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 쏟아지고 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은행, 목포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훈훈’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9일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에메랄드웨딩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 부족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삼계탕 430인분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이날 배식 봉사활동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목포지역 지점장 및 임직원, 대학생홍보대사 등 50여명이 함께했으며, 박홍률 목포시장이 동참해 뜻깊은 봉사의 의미를 나눴다.

삼계탕 배식 후에는 기정떡, 건강간식, 스포츠타월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여름철 광주, 목포, 순

천 등 각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지역 어르신에게 보양식을 대접하는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의 더 많은 어르신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직접 봉사활동에 나선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배식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거나 나눔 봉사의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본격 운영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지원·서비스 “안전한 일터·작업 환경 조성 최선”

광주경총영세사업장 협회가 광주·전남지역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광주·전남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중·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경영 활동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재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가중됐다.

이번에 설립된 종합대응센터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경총이 올해 3월 26일 공식 발족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의 광주·전남지역 센터이며,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센터는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위험성 평가 자문 및 개선 지원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 지원 △산업안전 매뉴얼·가이드 보급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경총은 지역기업 내 안전한 일터 구축과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응센터 설립과 다양한 지원 활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법적 요구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산업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무더위 쉼터 제공 캠페인’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 제공 캠페인을 전개한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순천신협에서 지역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대비하는 ‘신협 무더위 쉼터 제공 캠페인’ 지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신협 무더위 쉼터 제공 캠페인’은 광주·전남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신협중앙회는 올해까지 총 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영하 본부장, 순천신협 윤정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지역민과 조합원의 휴식을 위해 생수와 부채, 휴대용 선풍기 등을 제공했다.

‘신협 무더위 쉼터 제공 캠페인’은 지난 달 24일부터 8월23일까지 두달간 광주·전남 25개 신협의 영업점에서 운영되며, △피서물품 지원 △휴게공간 조성 △생수 제공 등으로 진행된다.

김영하 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신협이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신라면세점 ‘캐스퍼 일렉트릭’ 프로모션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일렉트릭’ 론칭을 기념해 신라면세점과 손잡고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8월12일까지 약 한 달 간 신라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서울점, 인천공항, 제주점 등) 내 배너 또는 현장에서 배포하는 지류 안내권 및 신라면세점 앱, 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구매 이벤트’와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로 실시된다.

현대차는 신라면세점 고객 누구나 캐스퍼 일렉트릭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금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캐스퍼 일렉트릭. 현대차 제공

신라면세점은 해당 쿠폰을 사용해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고한 고객 중 선착순 2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신라면세점 s리워즈 75달러(7만5000포인트)를 증정

한다. s리워즈 포인트는 신라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또한 현대차와 신라면세점은 면세점에서 5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 1등(1명)에게 ‘캐스퍼 일렉트릭’ 1대가 증정되며, 2등(20명)과 3등(50명)에게 각각 신라스테이 숙박권, 여행용품 패키지가 제공된다.

한편, 현대차는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캐스퍼 일렉트릭’의 인스퍼레이션(향속형)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지난 9일 시작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독보적인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영 기자